

주민 안전·행복 '최우선'... 안전파수꾼 역할 충실

군 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화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안소방서!!

그동안 진안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없어 효과적인 소방 업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021년 2월 진안소방서 개서로 인해 군민들에게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정철 초대 진안소방서장을 시작으로 2대, 1단, 2인전센터, 1구조대로 구성돼, 차량 22대, 인력 154명의 소방관으로 출범해 진안군민들의 귀중한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오정철 소방서장

개서 아래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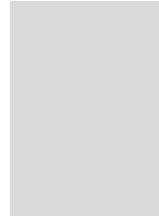
▲화재 44건·구조 1,151건(생활안전 723건 포함)·구급 1,509건 출동(2021년 12월 10일 통계 기준)

하루 평균 구조 3.7건(생활안전 2.3건), 구급 4.9건, 전체건수 8.8건 출동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즉 사망 및 부상은 0건에 그쳤으며, 3억6,311만4,000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별집제거, 동물포획, 잡금장치개방, 안전조치 등 생활안전 건수는 723건으로, 구조건수의 62.8%를 차지하는데 이는 생활형 구조수요 증가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119구조서비스의 확대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소방공무원 72명, 장비 8대로 119생활안전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예방접종 지원



상전면 치광화재 진압



교통사고 구조현장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입니다



죽도 인명구조



2021년도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 준우



기술경연대회 준우승

우선보급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내 화재취약계층 1,469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 설치를 지원했다.

▲ 2021년도 현장에 강한 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준우승·하트세이버 수여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2021년도 현장에 강한 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을 수상, 2021년 상반기 ESC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며 신설 소방서에서 쉽지 않은 폐거를 거두었다. 또한 심정지 환자 이송 중 심폐소생술 실시로 뇌 손상 없이 소생시켜 구급대원 3명이 하트세이버(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 시킨자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의 행보

오정철 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예방, ▲선제적인 신속한 대응, ▲함께하는 따뜻한 배려를 복무방침으로 먼저 고객을 감동시키는 창의적, 능동적 업무 수행으로 119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대에 군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진안군민이 감동하는 소방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